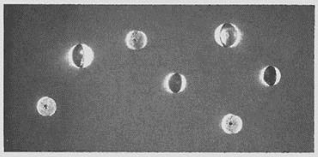
매일경제

"민중과 무속...제 예술의 두 뿌리죠"

May 31, 2017 I 이향휘 기자



'Seven Stars'

"민중과 무속… 제 예술의 두 뿌리죠"

박찬경 국제갤러리 '안녕'展

미디어 아티스트 박찬경(52)의 작품을 논할 때 민중미술과 무속신앙은 빼놓을 수 없다. 서울대 서양화과 출신인 그는 대학 시절부터 민중미술 계열 선배들과 작업을 같이했고, 분단 문제와 냉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작업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무속신앙과 관련한 작품도 본격화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서울' 예술감독이었던 그는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제목의 전시를 기획해 주목을 끌었고 지난 25일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개막한 개인전 '안녕'에서는 우리 산하를 떠도는 원혼들을 위로하는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현대에서도 굿이나 무속의 핵심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주의와 무한경쟁시대, 예술이라도 이름 없이 억울하게 간 사람들을 애도하며 공동체 감각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국내에서 개인전을 연 것은 5년 만이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26분짜리 흑백 영상인 3채널 비디오 '시민의 숲'은 오윤의 미완성 그림 '원귀도'와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에서 착안한 작품. 동학농민운동, 한국전쟁,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이고 흔란스러운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희생돼 잡귀로 떠도는 원혼들을 부른다. 영상 속 벌거벗은 브라스밴드는 인민군과 국군 등을 상징하며, 한복을 입은 무당은 어린 원혼들을 불러 애도한다. 치유적 의미의 비와 물도 나온다. "공동체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종교는 제도화됐고, 축제는 상업화됐고, 또 정치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 나라도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를 현대판 무당으로 빗대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는 하늘과 땅의 중간적 매개자로 예술가를 상정했다. "백남준 선생은 마치 동자승이 오신 분 같아요. 흥을 돋우고 쇼맨십이 강하고 낙관적이고 유희적이었죠. 전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마 삼신할머니쯤 될까요. 하하."

그가 무속신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미신적 요소가 아닌 신성성이다. 신성성을 갖추면서도 속된 세계와 솔직하게 만나는 그 지점에 끌렸다는 얘기다. '시민의 숲'이 좀 더 상상의 세계, 저승의 세계를 다룬다면 2층에 설치된 영상·설치 작품인 '승가사 가는 길'은 궁상으로 점철된 현실의 리얼리티를 보여준다. 북한산 승가사로 가면서 컬러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 벽에 비추고, 한편에는 등산을 마친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간 듯한 어지러운 풍경이 연출된다. 박찬욱 영화감독의 동생으로도 유명한 그는 이달 30일부터 형과 함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파킹찬스(Parking Chance·주차 기회)'라는 이름으로 3D 영상 작품을 출품한다. '파킹찬스'는 이 둘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쓰는 예명이다. 전시는 7월 2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61983